

SK이노 E&S, 직접생산 LNG 도입... 민간자원개발 '새 지평'

호주 바로사 가스전 LNG 카고 입학
향후 20년간 연간 130만t 공급 계획
이종수 사장 "자원개발 노력 지속"



SK이노베이션 E&S의 LNG수송선이 23일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LNG를 싣고 보령 LNG터미널에 처음 입학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

SK이노베이션 E&S가 호주 바로사(Barossa) 가스전에서 직접 생산한 액화 천연가스(LNG)를 국내에 처음으로 들여오며 민간 자원개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해외 탐사부터 개발·생산·도입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완수한 첫 사례로, 에너지 자립 기반을 한층 확대했다는 평가다.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 23일 충남 보령 LNG터미널에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첫 LNG 카고가 성공적으로 입학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물량은 호주 북서부 해상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다윈(Darwin)

LNG터미널에서 액화한 뒤 국내로 운송한 것이다.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 가스전 탐사 단계부터 참여해 개발과 생산, 도입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는 2012년 지

분 투자 이후 약 1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첫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20년간 연간 130만 톤 규모의 LNG를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연간 LNG 도입 물량의 약 3% 수준으로 국가 에너지 수급에 중요한 역할

을 할 전망이다.

바로사 가스전은 경제성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신규 액화 설비를 건설하는 대신 기존 다윈 LNG터미널을 개조·활용하는 '브라운필드(Brownfield)' 방식을 적용해 초기 투자 부담을 낮췄다. 미국이나 중동 대비 운송 거리가 짧은 호주를 거점으로 삼아 물류 경쟁력도 확보했다.

이번 LNG 도입은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이 1980년대 초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며 제시한 '무자원 산유국'의 꿈과도 맞닿아 있다. 1988년 1월 북예멘 유전에서 생산한 원유가 울산항에 처음 입학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호주 가스전에서 생산한 LNG를 국내로 들여오며 자원 확보 범위를 가스 분야로 확대했다. SK는 현재 전 세계 11개국에서 연간 약 2000만 배럴의 원유·가스과 약 600만 톤

의 LNG를 확보하고 있다.

바로사 가스전 개발 성과를 계기로 SK이노베이션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원유와 LNG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한 SK의 집념과 도전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 확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확실한 국제 에너지 시장 속에서 자원개발 노력을 지속해 국가 경제 발전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박승직·박두병 '기업가 명예의 전당' 헌액

두산그룹 창업주·초대회장 동반 헌액
박정원 회장 "선대 기업가 정신 계승"



24일 서울 이화여대 경영대학 60주년 기념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업가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오른쪽)이 헌액 기념패를 들고 양희동 한국경영학회 회장(왼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그룹

두산그룹의 근간을 세운 故 매헌(梅軒) 박승직 창업주와 故 연강(蓮崗) 박두병 초대회장이 '대한민국 기업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두산은 서울 이화여대 경영대학 60주년 기념홀에서 한국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기업가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박승직 창업주와 박두병 초대회장이 나란히 헌액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경영학회는 2016년부터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인을 선정해 명예의 전당에 헌액해 오고 있다. 부자(父子) 경영인이 동시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헌액식에는 박두병 초대회장의 장손인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박정원 회장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자의 마음으로 걸어갔던 선대의 창업정신과 도전정신이 두산의 DNA에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던 선대의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두산을 더 좋은 기업으로 만들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직 창업주는 보부상으로 시작해 포목상, 무역업, 양조업, 운수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갔으며, 특히 주식회사 전환과 무역업 확장 등을 통해 한국 근대 상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두병 초대회장은 박승직상점을 계

승해 근대적 기업 집단으로 전환시켰다. 1946년 '박승직상점'의 상호를 '두산상회'로 변경하고, 광복 이후 혼란기 속에서도 제조업 중심의 사업 구조를 확립했다. 동양맥주를 필두로 식음료 산업을 육성했으며 건설·식품·기계·유리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아시아상공회의소 연합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 민간 경제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제 경제단체 수장에 올랐다. 퇴임 이후에는 종신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한국경영학회는 "박승직 창업주는 한국 근대 기업사의 기틀을 마련한 기업가로서 근대적 기업 조직과 책임경영의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이후 한국 기업 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박두병 회장이 추진했던 사업 다각화, 해외시장 개척 등은 한국의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인 대표적 사례"라면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기업 환경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도 구조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원관희 기자

장인화 회장, 동남아 철강사업 전략 점검

(포스코그룹)

철강사 협력 등 '완결형 현지화' 실행

포스코그룹은 장인화 회장(사진)이 철강 사업의 '완결형 현지화' 실행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25일 싱가포르에서 동남아 지역 전략회의를 주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외 철강법인의 현지화 운영체계를 고도화해 권역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성장 전략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장 회장은 권역 내 주요 법인장들과 함께 올해 경영계획과 안전관리 방침을 점검하고, 공급망 고도화 전략의 추진 방향과 핵심 실행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권역 내 현지 철강사와의 협력 확대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대상 안정적 소재 공급 체계 구축 ▲법인간 시너지 창출 ▲권역 물류 거점 확대 및 운영 효율화 ▲지나해 설립한 싱가포르 액화천연가스(LNG) 트레이딩 법인 주요 현안 점검 등 철강과 에너지 사업을 아우르는 해외 성장 전략을 구체화한다.

동남아시아는 자동차·가전·건설 등 전



방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으로 꼽힌다. 포스코그룹은 인도네시아 PT 크라카타우 포스코를 비롯해 베트남(포스코아마토비나·포스코베트남·포스코VST), 태국(포스코TCS·포스코타이노스), 말레이시아(포스코말레이시아) 등 주요 법인을 중심으로 동남아 권역 내 생산·가공·유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 밀착형 영업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원료 조달부터 생산·판매까지 권역 통합 경쟁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장인화 회장은 지난달 열린 올해 첫 그룹 경영회의에서 "위기 속 실행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투자의 결실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동남아시아 지역 전략회의를 통해 이러한 경영 기조를 해외 사업 현장에서 구체적 실행 과제로 연결하고, 해외 성장 전략의 추진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한화에어로, 항공엔진 국산화 속도

39개 협력사, 시험·연구기관 업무협약
부품·소재 자립화 체계적으로 추진

스트웍스(KLW), 테스코 등 39개 협력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가 공동으로 업무협약(MOU)에서 명명했다. 한국재료연구원, 공군항공자원관리단, 국방과학연구소(ADD), 경상국립대 관계자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 부품·소재 자립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개발부터 시험·평가·인증에 이르는 전 과정의 공동 연구개발(R&D)을 수행하기로 했다. 협력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전략도 수립해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엔진 핵심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위한 상생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협력사와 시험·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4일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1사업장에서 '항공엔진 소재·부품 자립화 및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기본, 케이피씨엠(KPCM), 한국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설계와 가공 등 항공엔진 개발 전반으로 상생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와 함께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해왔다. 국내 정밀주조 전문기업 한국로스트웍스, 성일터빈, 천지산업 등과 협력해 2~3세대 단결정 소재를 적용한 터빈 블레이드와 고온 부품을 개발·양산했으며 NADCAP·KOLAS 등 국제 인증도 획득했다. 합작사 씨머텍코리아를 통해서 는 완제품 제조사(OEM)에 코팅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없이는 항공엔진 국산화를 이룰 수 없다"며 "상생을 기반으로 기술 주권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벤츠코리아 'EQE 350+ SUV' 출시

벤츠, 전기 SUV 'EQE SUV' 신규 트림 'EQE 350+ SUV'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비즈니스 전기 SUV 'EQE 350+ SUV'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EQE SUV에 신규 트림을 추가하며 라인업을 확장한 것이다. EQE 350+ SUV는 기존 EQE SUV 라인업에서 사륜 구동 모델이었던 EQE 350 4MATIC SUV를 대체하는 후륜 구동 모델이다.

EQE 350+ SUV는 국내 인증 기준 1회 충전 주행 거리 467km로 EQE SUV 라인업 가운데 가장 긴 주행 거리를 제공한다. 에어매트 서스펜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 디지털 라이트, 주차 패키지 등도 적용됐다.

차량의 외관에는 스타 로고 패턴의 블



메르세데스-벤츠 EQE 350+ SUV.

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을 포함한 일렉트릭 아트 라인이 적용됐으며, 역동적인 차체 비율과 근육질의 스포티 디자인, 20인치 5-스포크 경량 알루미늄 휠을 장착했다. 실내에는 일렉트릭 아트 라인을 적용했다. 여기에 12.3인치 와이드스크린 콕핏과 12.8인치 OLED 센터럴 디스플레이를 통해 직관적인 조작 환경을 구현했다. 트렁크는 520L의 기본 용량과 함께 2열 폴딩 시 최대 1675L의 여유로운 적재공간을 갖췄다.

/양성운 기자